

## 《자본주의를 다시 생각한다》 요약

장	현 상황	주류 경제학 비판	대안 이론과 정책
2. 켈트-긴축의 실패	긴축정책으로 인한 침체 장기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적자가 침체를 불러일으킨 것이 아니라 침체가 적자의 규모를 늘린 것이다.</li> <li>“실업을 돌보면 재정은 스스로를 돌볼 것이다”(케인스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재정균형이라는 환상의 제거</li> <li>“기능적 재정(functional finance)이라고 하는 사명 지향적 재정정책(아바 러너)</li> </ul>
3. 레이-네르시산-화폐의 이해와 거시경제학	긴축정책으로 인한 장기 침체와 무력한 통화정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외생화폐론과 화폐수량설, 구축이론 비판.</li> <li>모든 화폐는 민간은행이 대출을 통해서 창출한다=화폐의 내생성(화폐수량은 상대적으로 중요한 지표가 아니다)</li> <li>중앙은행은 목표 금리를 지키기 위해 준비금의 공급을 늘리거나 줄인다.</li> <li>QE는 별로 효과가 없다(충수요를 증가시키는 둔탁한 수단).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내생화폐-현대화폐이론(modern monetary theory)</li> <li>“자기 고유의 통화를 가진 나라의 경우 정부지출은 과세나 차입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 자금에 구애받지 않는다”-통화정책보다 재정정책이 우월하다.</li> </ul>
4. 홀데인-단기 주의의 비용	경제행위자의 단기 시야(할인율 평균 12%)로 인한 침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특히 자본시장의 단기주의 경향(투자자의 과도한 할인율과 배당의 증가)으로 인한 장기 투자 기회의 상실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기업의 장기 정보 공개</li> <li>경영자 보수의 이연과 특정상황에서의 몰수</li> <li>장기주의를 유도하는 거버넌스 개혁(경영자의 신의성실의무 강화, 보유기간 비례형 투표권 등)</li> <li>증권의 장기보유를 우대하는 조세/보조금 정책</li> </ul>
5. 라조닉-혁신기업과 기업이론	시장만능주의로 인한 혁신의 부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완전경쟁 하 신고전파기업이론은 “비생산적 기업이론”-생산성 향상의 미시경제학적 기초 무시 = “훈련된 무능력”(베블러)</li> <li>맑스주의 “생산적 기업이론”은 노자간의 분배개선과 생산성향상을 무시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네오슈페터주의 혁신기업이론-기업의 투자전략과 혁신구조가 생산성을 향상시킴</li> <li>혁신은 집합적이며 누적적이고 불확실한 과정</li> <li>기업의 전략적 통제, 조직통합, 혁신적 금융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</li> </ul>
6. 마추카토-혁신, 국가, 그리고 인내자본	생산성 향상 혁신 속도의 저하로 인한 침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기술은 외생적이고 혁신은 기업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주류 경제학은 오류. “신고전파의 균형에는 혁신과 발전이 비집고 들어갈 여지가 없다”(슈페터)</li> <li>정부의 역할은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것을 넘어서 시장 창출</li> <li>정부는 혁신이 속도와 방향을 결정할 수 있음.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국가는 혁신체제의 핵심 행위자(네오 슈페터리안)</li> <li>모험자본가들은 정부가 자본집약적이고 불확실한 대규모 투자를 한 이후 20년이 지나서야 투자</li> <li>발전네트워크 국가(블록, 켈러), ‘과정으로서의 정책’(허쉬먼), 공공의 위험감수에 대한 보상(투자의 일부를 회수), 국가투자은행의 인내자본 공급</li> </ul>
7. 존스.코지-투자주도 성장	투자 부족으로 인한 유럽 침체의 장기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긴축정책(구축이론)과 단기주의로 인한 투자부족</li> <li>“투자는 단기적으로 부족한 수요와 실업을 해소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기술혁신을 도입하고 잠재산출을 늘리는 데도 필요”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EIB와 국가투자은행에 의한 기업의 장기투자 유도</li> <li>EIB의 납입자본 증대, 위험완화기금의 조성, 새로운 유럽투자기금의 조성</li> </ul>
8. 스티글리츠-불평등과 경제성장	불평등 심화에 따른 저성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한계생산성 분배이론 비판-비슷한 기술과 생산성, 1인당 소득을 가진 나라들간 소득분포의 엄청난 차이</li> <li>지대추구(소유권에 기초한 소득)에 의한 불평등-부/소득 비율(=피케티의 베타)의 증가는 지대가치의 증가 때문</li> <li>노동운동의 협상력 저하, 비대칭적 세계화,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, 미온적 반차별법 집행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게임 규칙의 개정-세전-세후 양쪽에서 불평등 줄이기</li> <li>차별 예방과 노동자의 협상력 강화, 최고경영자의 권력과 금융부문의 단기주의 규제, 최저임금의 인상, 교육기회의 확대, EITC의 강화-특히 비교 가능한 기업과의 상대적 성과에 의한 경영자보수 결정, 인프라스트럭처-기술-교육에 대한 공공투자의 확대, 자본소득에 대한 증과세</li> </ul>
9. 크라우치-민영화의 역설과 공공서비스의 외주	기업 신자유주의(민영화, 외주)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위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민영화와 외주는 신고전파 이론이 상정하는 완전경쟁을 만들어내지 못하며 현실은 그 반대임.</li> <li>신공공행정론의 오류</li> <li>국제무역의 신자유주의적 전환은 대기업에 특혜. 대마불사(자동차와 에너지), 자연독점부문, 집합재의 민영화, 공공서비스의 외주는 정치적 독점 체제를 강화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집합재(예컨대 은행)의 민영화는 독점기업의 정치화를 초래 → 불평등심화</li> <li>정치에 의한 신자유주의의 제어 필요</li> </ul>
10. 쟁겔리스-탈탄소: 혁신과 기후변화의 경제학	지구온난화로 인한 생태위기, 경제위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기후변화는 단지 기술변화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문제-공유지의 비극</li> <li>기후변화는 경제학이 해법을 개발한 환경문제와 다른 종류의 문제-신고전파 한계이론은 다룰 수 없음.</li> <li>정책결정자의 단기적 시야-미래 세대의 비극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진화경제학에 의한 해결책 모색-경로의존성, 잠김현상 고려</li> <li>탄소는 독특한 오염원-탈탄소는 전체 경제 체제의 전환을 요구</li> <li>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의 전환, 내연기관의 전환</li> <li>정책이 혁신 연쇄 전체에서 양의 되먹임 순환을 작동시켜야 함.</li> <li>정부의 사명지향적 투자에 의한 혁신 방향 선도</li> </ul>
11. 페레스-자본주의, 기술 그리고 글로벌 녹색 황금기	글로벌 녹색 대전환이 글로벌 녹색 황금기를 가져올 수 있음.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정통 모델에서 혁신을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. ex. L/K는 생산물의 근본적 혁신을 설명하지 못함.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기술혁명에 기술의 장착과 배치는 두 단계를 거치며 역사적으로 그 사이에 버블 붕괴라는 위기에 직면. 현재는 녹색IT의 장착 후 위기국면이며 녹색기술이 사회 전체에 배치되어 생활양식까지 전환시키면 녹색 황금기가 도래할 것</li> <li>녹색성장과 녹색혁신 쪽으로 정부가 운동장을 기울여야 함.</li> <li>녹색혁신은 성장과 일자리와 함께 불평등의 감소를 가져올 것</li> </ul>